양계 안테나

김 용 화
(본지 편집장)

난가 안정 기대, 아직 이르다
생산증가 여지 높아

채란인들이 농장경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고 한탄을 한 것이 불과 100여일 전이다. 오리무중이었던 난가가 7월말을 기점으로 하여 서서히 인상되기 시작하다가 8월에 접어들어 생산비선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추석 전에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난가가 머뭇거림 없이 강세를 보여 추석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 분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중추가격이 상승하고, 병아리 주문이 몇 달치 물량이 꽉 찼다는 후문이다.

물론 노계가격도 상승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난가가 안정권에 접어들어 오히려 수입이 걱정된다는 실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행복(?)한 걱정들을 당사자인 채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히 궁금할 따름이다. 말 그대로 난가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면 어찌 반가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내심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다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을까 하여 걱정이 앞선다.

저난가에 지친 채란농장들이 사료가격, 기계구입 및 수리비, 약품값 등 직접 생산비성 경비로 인하여 언제 경매에 처해질는지 알 수가 없는 입장에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사육수수를 감소시킨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중간 알선업자까지 등장하여 계란을 판매하고, 그 대

금으로 각종 비용을 공제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였다. 규모가 적은 영세 농가들의 희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어려워도 쉽사리 감소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산란계가 갑자기 어디로 인가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채란업계의 현실을 보면서 아직도 생산구조가 취약함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이다. 채란인들은 난가가 다소 안정된 것에 대하여 채란인들이 힘을 모아 생산량이라도 조절한 듯한 느낌을 갖는다면 차후에 일을 더욱 그르치게 된다. 난가 안정은 생산량의 감소 덕분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원천적인 것은 소비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였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수입 수산물의 납 삽인 사건, 채소의 농약검출, 태풍으로 인한 채소류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하여 계란의 대체 소비효과가 크게 나타난 가운데 시기적으로 개학과 피서 마무리, 앞당겨진 추석에 힘입어 수요가 일시적으로 겹쳐 난가는 수직 상승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바꾸어 말하면 소비가 다시 감소한다면 난가는 일시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근본적으로 난가 안정을 위하여 기반을 정비한, 즉 구조조정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란인들은 그간 겪은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냉철한 마음으로 난가 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내년 하반기 경기를 진정시키는 길임을 되새겼으면 한다.

소비자의 관심은 안전성이다
생산성과 안전성에 보다 큰 관심을

최근 소비자들이 식품 선택 시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다름 아닌 안전성이 확보되었나를 살핀다는 점이다.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제는 보다 철저히 건강과 직결된 식품의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르지만 이에 비해 우리 양계인들은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 늘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양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농장에서 닭 질병을 효다 적극적으로 예방하여 생산성도 높이고, 식품으로써의 안전성도 확보하는 두 가지 전략이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꼭 농장에서 닭 질병을 없앤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1차 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일이므로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닭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먹는 양계산물이 질병이 걸린 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당연히 선택을 꺼리게 된다.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닭 질병은 살모넬라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와 조금이라도 상관이 된다는 점이 부각되면 소비는 얼어붙게 마련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양계인들의 몫이 된다. 다음은 제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뉴캣슬병과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하더라도 1종이라는 것 하나 만으로도 발생 사실이 공개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 외 제2종 가축전염병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계인들의 시각은 우선 내 농장에서만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감을 느

낄 수가 있다. 질병이 나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이라면 무엇 때문에 공동 방역 운운하겠는가? 다함께 생각해볼 일이다. 백신을 공급하여도 왜, 내가 해야 하느냐는 식의 개념으로는 절대로 차단 방역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어떤 일이나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잘 되도록 문제를 보완하려는 노력도 없이 불만부터 제기한다면 볼상 사나운 결과 밖에는 얻어지는 것이 없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양계산물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일부 수입 꽃게에서 납이 삽입되었다는 매스컴의 보도에 의해 전 꽃게의 소비가 얼어붙는 장면을 보아 이 부문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직접 목격했지 않았는가! 꼭 남의 일만도 아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일이 닥칠는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 차원에서라도 서로 힘을 합하여 닭 질병의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하리라고 본다.

양계산물의 유통이 변하고 있다
품질고급화 쪽으로 접근

계란이면 다 같은 계란이냐?, 닭고기면 다 같은 닭고기냐? 하는 말이 얼마 전부터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좀 과장된 상술상의 발언이 라는 이유를 들어 가볍게 넘겨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가볍게 흘려 보낼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단순한 논리로 본다면 계란과 닭고기가 어떻게 생산이 되었건 간에 다르다는 표현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으나, 안전성에 비중을 두어 따져 본다면 위생적인 것과 비위생적인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계란과 닭고기가 시중에서 품질로 차별된다는 것은 양계인들이 새겨들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얼마 전 계란의 품질 등급을 시행하겠다고 시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들이 대대적인 반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심 걱정이 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생산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준이 있기도 하였지만 다수의 의견은 현재의 방법이 좋으니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만만찮아 보였다.

결국 품질 고급화는 소비자들의 요구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은 막상 닥치고 보니 번거로움에 직면하자 귀찮아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 같은 생각으로는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은 감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을 거듭 되새겼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우리 양계산물 뿐이 아니고 전 식품이 안전성에 바탕을 두어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 있다. 우리가 편하다고 대세를 거스를 수는 더욱 없는 일이다. 계란이든 닭고기이든 간에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시행을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이것이 곧 국제경쟁력 확보인 동시에 양계인들의 살길이라고 보여진다.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먼저 닭 질병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하는 기초부터 출발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된다. 양계